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2023. 11. 3.(금) 15:00~17:00
천안축구센터 2층 중세미나실

좌장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 김양식 (청주대학교 교수)

토론 이종택 (천안박물관 관장)

송길룡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박종갑 (천안시의회 의원)

송길상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종무팀장)

I 목 차 I

I.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5
II. [주제발표]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 가치와 정책과제	7
- 김양식(청주대학교 교수)	
III. [토 론]	
1.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적 가치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25
- 이종택(천안박물관 관장)	
2.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가치 계승	31
- 송길룡(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3. 천안시와 『동경대전』 목천판이 갖는 의미	39
- 박종갑(천안시의회 의원)	
4. 『동경대전』 목천판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지정방안	43
- 송길상(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종무팀장)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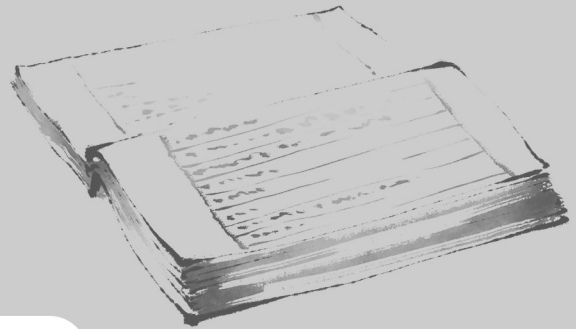
- 일 시 : 2023. 11. 03.(금) 15:00 ~ 17:00
- 장 소 : 천안축구센터 2층 중세미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5:00~15:10	10'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정재선 전문위원
15:10~15:20	10'	내 빈 소개 및 개 회 사	김선태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김선태 의원
15:20~15:40	20'	주 제 발 제	발제자 : 김양식 교수
15:40~15:45	05'	자 리 정 리	복지환경위원회 직원
15:45~16:25	40'	지 정 토 론	토론자 4명(각 10분)
16:25~16:40	15'	종 합 토 론	발제자, 토론자
16:40~16:50	10'	청 중 토 론	참여자 전체
16:50~17:00	10'	정 리 및 폐 회	좌 장(김선태 의원)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주제발표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 가치와 정책과제

김 양 식

청주대학교 교수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 가치와 정책과제

김양식(청주대학교 교수)

1. 머 리 말

최근 들어와 국내외적으로 동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경향이 다.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맹수교수는 ‘동학 한류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진단할 정도로, 동학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동학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19는 인류로 하여금 지난 20세기 심각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성장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던지도록 하였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의 도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문명의 전환기에 탄생한 동학 메시지가 아직도 들려오는 현재성 때문이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 보국안민(輔國安民) 사상, 수심정기론(守心正氣論), 삼경(三敬) 사상, 이천식천(以天食天), 다시 개벽사상 등은 오늘날 지구의 생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기에 처한 인류로 하여금 발길을 멈추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오래된 미래가치와 길을 찾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근본이니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민초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봉기하였던 1894 동학농민군들이 보여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동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 매우 뜻깊은 일이 충남 천안에서 있었다. 1883년에 천안 목천에서 간행된 동학 경전 『동경대전』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경대전』 판본으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경대전』 목천판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간행터의 위치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역사적, 서지학적, 장소적 가치 등이 제대로 규

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동경대전』 목천관의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동경대전』의 원형가치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계승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동경대전』의 역사적 가치

동학 경전은 한문 경전인 『동경대전』과 한글 경전인 『용담유사』 두 권이 있다. 『동경대전』은 한문 해독이 가능한 지식인층 대상으로 한 경전이고, 용담유사는 한문을 모르는 민중들을 위한 경전이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1824-1864)는 1860년 4월 5일(양력 5월 25일)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 틈틈이 글을 썼다. 1960년 4월 말경에 ‘용담가’를 지은 이후, 대두분의 글은 1861년 6월부터 체포되기 전인 1863년 11월까지 2년 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쓰였다.

죽음을 직감한 수운 최제우는 해월 최시형(1827-1898)에게 도통을 물려주면서 그의 글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였으나, 1863년 12월 10일 반란 죄목으로 수운이 체포되고 다음해 죽음을 맞이하였다. 동학에 대한 탄압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최시형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강원도 등지의 산간마을을 옮겨다니면서 동학의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동학 창시자이자 스승이신 수운 최제우의 글을 모아 동학 경전으로 간행하는 일은 여의치 않았다. 해월은 이 점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학도들이 날로 증가하고 동학이 강원도 인제 등지 산간마을에서 벗어나 점점 충청도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그에 따라 동학 경전 간행의 필요성이 더 요구됨에 따라, 해월은 1880년에 인제에서 처음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이후 1883년에 목천과 경주, 그리고 1888년 인제에서 총 네 차례 『동경대전』을 추가로 간행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그에 따라 동학은 1880년대를 거치면서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조직화되면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동경대전』에 실린 수운 최제우의 글은 20편 내외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포덕문(布德文)〉 · 〈논학문(論學文)〉 · 〈수덕문(修德文)〉 · 〈불연기연(不然基然)〉 4편이다. 그 외에는 축문 · 입춘시 · 강시 · 좌잡 · 화결시 · 탄도유심급 · 결 · 우음 · 팔절 · 제서 · 영소 · 필법 · 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글을 수운 최제우가 직접 글을 써서 준 기록이 남아 있어 수록한 것도 있고, 일부는 수운이 하는 말을 받아쓰거나 기억에 의

존해 다시 작성하고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포덕문〉은 1861년 최제우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암자 '은적암'에서 수도하면서 지은 것으로 525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상태에 빠져 천명을 돌보지 않고 천리(天理)에 순종하지 않음을 개탄하면서 천주교의 잠입과 서세동점을 간파했다. 그래서 〈포덕문〉에는 '서학'에 대항해 '동학'을 선포하는 보국안민·광제창생의 정신과 이 도를 천하에 널리 전파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잘 나타나 있다.

〈논학문〉은 동학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총 1,338자로 되어 있다. 1860년 4월 5일 천주로부터 도를 받는 종교체험 과정이 묘사되어 있으며, 포덕을 위해 마련된 21자 주문의 뜻이 유학자와의 문답으로 해명되어 있고, 천지조화의 무궁한 운수와 천도의 무극한 이치가 설명되어 있다.

〈수덕문〉은 1862년 각지의 교도들에게 수덕에 힘쓸 것을 당부한 글로 1,060자로 되어 있다. 동학의 극의는 '수심정기'의 4글자에 있으므로 하늘 조화의 참된 마음을 공경하고 믿을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관을 정제하고 길에서 먹거나 뒷짐지는 따위의 천한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하며, 악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한천에 급히 앉는 일을 삼가고, 누워서 높은 소리로 주문을 암송하는 일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불연기연〉은 최제우가 처형되기 바로 이전 해인 1863년에 지은 총 524자로 된 글로 사상적으로 가장 완숙하고 심오한 인식론적 근거를 펼친 글이다. 이는 역설적인 논리이자 반대일치의 논리로도 통한다. 이는 기존 개념과 인식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며, 다시 개혁의 논리적 뒷받침이 된다.

이와 같이 『동경대전』은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의 말을 통해 동학의 핵심 사상과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동경대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 같은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비롯하여, 잘못 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민초들을 편한하게 하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사상,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서로 돕고 상생하자는 유무상자(有無相資) 사상,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다시 개혁사상, 마음을 갈고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자는 도학 사상 등이 응축되어 있다. 그를 통해 『동경대전』은 어떻게 무극대도를 이룰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다 보아야 하는지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동경대전』의 사상적 기반은 수운 최제우도 언급하였 듯이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과 신앙,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1천년 이상 우리

민족의 종교이자 사상·학문이었던 불교와 유교·선도 등을 융합하여 만들어졌기에, 『동경대전』은 민족의 얼과 혼과 숨결이 내재된 ‘민족의 경전’이었다. 그 때문에 『동경대전』에 사용된 언어는 우리 민족의 혼이 스며있고 아픔이 녹아있고 꿈과 희망이 묻어있는 소중한 지식자산이자 언어자산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동경대전』은 단지 하나의 책자로 머문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부자유와 수탈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의식을 각성시킨 ‘민중의 경전’이었다. 동학에 있어서 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같은 평등한 존재였다. 동학 안에서는 당시 조선 민중의 가장 큰 한이었던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었고, 가난과 권력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구나 주문을 외우고 수심정기하면 무극대도를 이룰 수 있는 평등하고 균등한 사상이자 삶이었다. 또한 동학을 함으로써 나라를 돕고 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보국안민의 길’이 열려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동경대전』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뜻있는 민중들은 『동경대전』을, 난세를 밝혀주는 등불이요 나아가고 머무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등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경대전』은 단지 과거 동학의 유산이 아니다. 140년전 천안 목천에서 간행되던 당시 『동경대전』이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일깨워 주었듯이, 오늘날 생태적 지구 위기를 맞이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역시 『동경대전』을 되새기면서 시대적 고민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경대전』은 140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민중의 경전이요 민족의 경전임에는 변함없다.

3. 『동경대전』 목천판의 간행

19세기 후반 조선의 전역으로 확산된 동학은 1860년에 창도된 뒤 1864년에 교조 최제우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를 피해 제2세 교주 최시형은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 산간지방으로 숨어다니며 포교 활동을 하였으나, 1880년대에 들어와 동학의 교세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82년 6월 임오군란 이후 각처에서 동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양에 머물러 있던 해월 최시형을 직접 찾아오는 인사들도 많아졌다.¹⁾

그리하여 동학의 물결은 충청도 천안지역에도 닿았다. 천안지역 동학 전파는 목천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목천은 동으로 진천, 남으로 청주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특히 목천지역은 금북정맥을 지붕으로 삼고 있으면서 수계가 미호천과 연결되어 있어 청주지역과 같은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다. 이 때문에 1880년대 초반 청주지역으로 전파된 동학의 물결이 목천지역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1882년 가을부터 청주지역과 목천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학에 들어오는 자가 많아졌다.²⁾

목천지역에 동학을 전파한 주역은 목천 구내리(區內里)에 사는 김은경(金殷卿)이었다. 그는 1881년 8월에 충북 단양에 있는 최시형을 찾아가 수도하는 절차를 물었다고 한다.³⁾ 그 무렵 이곳저곳을 떠돌던 최시형은 동학이 점점 확산되자, 1875년 2월부터 충북 단양 송두독에 큰 집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동학교세를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⁴⁾ 그러므로 김은경이 해월을 찾아간 곳은 단양 대강면 송두독이었을 것이다.

김은경이 단양에 갔을 때는 1880년 6월에 인제 갑둔리 김현수집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여 주요 인물에게 나누어 주었고, 뒤이어 1881년 6월에 단양 천동에 사는 여규덕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여 각처에 반포한 직후였다.⁵⁾ 그렇다면 김은경 역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직접 보았을 것이며, 해월에게 한 부씩 받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단양에서 목천으로 돌아온 김은경은 동학을 주변인들에게 전하는 한편, 동학에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는 『동경대전』을 추가로 간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간행 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해월 최시형에게 『동경대전』 간행 뜻을 전해 해월 최시형의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1883년 2월 김은경은 자신의 집에 『동경대전』 간행소를 설치하고, 경전 1천여부를 간행하여 각 포(包)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⁶⁾ 간행과정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880년에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많은 비용을 염출하고 30여 명의 인사가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뒤 1개월여 걸쳐 간행한 것으로 보아,⁷⁾ 목천판 역시 김은경을 비롯한 충청도 동학도들의 비용 부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을 것이며 간행기간도 1개월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天道敎書』, 포덕 23년 임오년조.

2) 『侍天敎宗釋史』, 제8장 유적간포, 경진년(1880)조. 표영삼, 『동학 2』(통나무, 2005), 108쪽.

3) 『천도교서』, 신사년조.

4) 표영삼, 『동학 2』(통나무, 2005), 65-66쪽.

5) 『천도교서』, 경진년-신사년조.

6) 『천도교서』, 포덕24년(1883) 2월조.

7) 『해월선생문집』, 경진년조.

이 책은 계미년(1883년) 봄(仲春)에 북접(北接, 최시형)에서 중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은경은 1883년 3월에도 최시형을 배알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동경대전』 간행건으로 찾아본 것으로 보인다.⁸⁾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장소는 ‘구내리 김은경 집’이 분명한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현재 병천면 면실마을과 동면 구계마을 두 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1883년 2월에 『동경대전』 목천판이 간행된 것을 계기로 천안지역은 물론 충청지역으로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손병희·서장옥을 비롯해 뒷날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충청도 지도자들은 대부분 1883년 봄 목천판 『동경대전』 간행 전후에 동학에 들어온 인물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1883년 목천에서의 경전 간행은 인접한 충청도지역 뿐 아니라,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그에 따라 천안지역 역시 목천에서 흘러나온 동학의 물결이 퍼지면서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대되었다. 목천에서 『동경대전』이 간행된 이후 동학조직이 확대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계미(1883)년에 보은 최시형으로부터 도를 받았고, 목천 복구정(伏龜亭) 대접주인 김용희와 김성지 등과 더불어 동심결의하여 ‘삼로(三老)’라 스스로 칭하고 동서에 각각 포를 설치하고 널리 포덕하기를 힘썼습니다. 먼저 김용희와 상의하여 포중에서 수렵하여 6천 냥을 모아 『동경대전』 1백 권을 간행하여, 그 중에서 30권은 최시형에게 보내고 나머지 70권은 나와 용희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 중칠(仲七)을 팔도도대정(八道都大正)으로 임명하고 사위 홍치엽은 교장(敎長)으로 하였고, 나채익·이선일 등은 각각 소임을 정해주었습니다. 대장장이를 불러 모아 긴 창과 큰 화포(火砲)를 주조하였습니다. 무리를 거느리고 기포하여 금년(1894) 9월 그믐부터 천안·목천·전의 3읍의 군대물품을 탈취하여 세성산에 들어가 웅거했습니다.>⁹⁾

이 기록은 1894년 10월 21일 목천 세성산전투가 끝난 3일 뒤에 작성된 것이다. 윤영렬이 이끄는 민보군은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뒤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수색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10월 27일 전 도사(前都事) 김화성(金化城)과 나채익(羅采益)·홍치엽(洪致燁)·이선일(李善一) 등 4명을 체포한 뒤 심문하

8) 『천도교서』, 포덕24년 3월조.

9) 『巡撫先鋒陣騰錄』, 10월 27일조.

였다. 이때 김화성이 한 말이다.

이와 같은 김화성의 구술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김화성은 김용희와 상의하여 6천 냥을 모아 『동경대전』 1백 권을 간행한 사실이다. 문제는 김화성이 간행한 『동경대전』이 김은경 집에서 간행한 『동경대전』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 별도로 간행한 것인지 여부이다. 두 『동경대전』이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김화성이 김은경보다 2년이나 늦은 1883년에 동학에 들어간 점이다. 게다가 그 해는 이미 2월경에 『동경대전』이 간행되었으므로, 김화성 등이 6천년이라는 거금을 모아 김은경 집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화성이 최시형을 찾아간 시점과 『동경대전』을 간행한 시점은 약간의 시차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김화성이 『동경대전』을 간행한 것일까? 이와 관련한 기록은 위 김화성 진술 밖에 없다. 동학교단 자료에 김화성의 『동경대전』 간행 기록이 없다는 점은 동학교단 차원에서, 즉, 최시형의 지시하에 간행된 공식적인 경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화성이 간행한 『동경대전』은 김은경 집에서 간행한 『동경대전』 이후에 개인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김은경 집에서 사용하였던 목활자를 활용해 손쉽게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화성은 김용희·김성지와 함께 동서로 포접을 설치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김화성은 천안 남면 죽거리(竹巨里)에 살았고, 김용희는 목천 복구정의 접주였다. 이들은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한편, 김화성의 아들과 사위를 각각 팔도도대정과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었다. 그리고 무기를 직접 제작해 1894년 9월에 기포,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세성산전투에 참여하였다. 김용희도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뒤 체포되어 효수되었다.¹⁰⁾ 이것으로 보아 목천 세성산전투 이전 목천지역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두 번씩이나 『동경대전』이 간행되었고 동학조직 역시 체계적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4. 문화유산으로서의 『동경대전』 목천판의 가치

1883년 2월에 목천 ‘구내리’ 김은경 집에서 간행된 『동경대전』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판본임.

10) 『순무선봉진등록』, 11월 9일조.

1880년대 『동경대전』은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 <표 4>와 같이 총 4번에 걸쳐 재간행되었다. 현재 가장 많은 부수가 남아 있는 경진년(1880) 추정본은 어디까지나 추정본에 불과하다.

특히 앞서 인용한 『시천교종역사』(제2편 제8장 계미년조) 기록에 의하면, 경진년에 인제에서 간행한 『동경대전』은 최시형이 직접 쓴 발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소장본 모두 발문이 없으며 간행연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제에서 간행한 『동경대전』은 분량이 많지 않고 최초로 간행된 희귀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4점이나 남아 있는 점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1880년 인제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진본임이 현존하는 최고의 『동경대전』 판본은 목천판으로 보아야만 한다.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도 그 이전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런 만큼 목천판 『동경대전』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동학 경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표 1> 1880년대 간행 『동경대전』 판본 현황

판본	간행지	간행연도	판수	권 구분	행자수	소장처
경진 추정본	인제	1880?	30판	권 1-7	8행16자	독립기념관/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기타(개인 소장본) 4점
계미 중추본	목천	1883 봄	38판	없음	8행 13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김진관 기탁본) 등 1점
계미 중하본	경주	1883 여름	26판	없음	9행 20자	계명대 도서관/남산도서관/개인 소장본(문용익) 등 3점
무자본	인제	1888	29판	없음	9행 15자	서울대 규장각/개인 소장본(박명순) 등 2점

*자료: 손계영, 「1880년대 간행 동경대전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1, 2022, 178쪽 재정리.

둘째, 목천판을 통해 『동경대전』이 경전으로서의 체제를 완전히 갖추.

『동경대전』은 1880년대에 인제를 시작으로 총 4번 간행되었다. 1880년 인제 판은 목천판 『동경대전』 발문에서 최시형이 밝혔 듯이 수운 최제우의 글이 빠진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최시형은 그 점을 늘 안타깝게 여기다 목천판을 간행함으로써 비로소 무극대도의 경편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목천판을 통해 완전한 경전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실제 1880년 인제판은 처음부터 동학 경전을 발간할 목적으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수운 최제우의 문집을 간행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¹¹⁾ 그 때문에도 1880년에 인제에서 간행한 『동경대전』은 경전으로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완성 작품이었다.

따라서 『동경대전』은 목천판 간행을 통해 경전으로서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그 이후 나온 판본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목천판 이후 간행된 1883년 여름 경주판, 1888년 봄 판본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그 체제가 세 판본이 같다. 다만, 후자 2개 판본은 유고음과 우음 2개가 추가되었을 뿐이다.¹²⁾

반면에 1880년 경진판으로 추정되고 있는 판본은 목천판과 체제가 다르고 누락된 글도 많다. 그리고 문집처럼 권수로 나누어 편집하여 이후의 경전과는 다른 체제이다.

실제 경진판 추정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윤석산교수에 의하면,¹³⁾ 첫째, 경진판 추정본은 문집 체제인 점, 둘째, 『동경대전』의 핵심 글인 논학문의 제목이 ‘동학론’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목천판 이후 간행된 모든 판본이 존경의 의미로 천주·상제·선생의 앞만 한 자씩 띄어쓴 반면, 경진판 추정본은 영(靈)·교(敎)·천령(天靈)·천도(天道)·강령(降靈)·왕(王)·선고(先考)·시(侍) 등의 앞도 한 자씩 띄어써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경진판 추정본은 해월 최시형이 지적한 것처럼 수운 최제우의 글이 빠진 것이 많고 수록된 글도 문장과 글자가 누락되거나 틀린 것들이 많아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진판 추정본은 목천판 이후 간행된 『동경대전』 모두 동학의 중요한 의식인 포덕식, 입도식, 제수식, 치제식 등의 의식 절차와 그 의미를 기록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윤석산교수는 1880년 인제에서 간행한 『동경대전』 자체가 수운 최제우의 문집 차원에서 기획되었기 때문에 동학 의례는 신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이것으로 보아 목천판 『동경대전』은 완전한 형태로 간행된 최초의 동학 경전으로서, 그 이후 출간된 『동경대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11) 『최수운선생문집 도원기서』, 경진년조; 『해월선생문집』, 경진년조.

12) 윤석산, 「『동경대전』 간행의 의의와 목천판의 가치」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 139주년 기념문화제 자료집, 2022, 43쪽.

13) 윤석산, 「새로 발견된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10.

14) 위 논문, 217쪽.

〈표 2〉 1880년대 목천판 『동경대전』 판본별 목차

1880년 인제판(추정)	1883년 목천판	1883년 경주판	1888년 봄 판본
권1 포덕문	포덕문	목천판과 동일	목천판과 동일
동학론	논학문		
권2 수덕문	수덕문		
불연기연	불연기연		
탄도유심급	축문		
권3 축문	주문		
주문	입춘시		
강시	절구		
권4 좌잡	강시		
팔절	죄잡		
필법	화결시		
권5 화결	탄도유심급		
강시	결		
제서	우음		
권6 부시부	팔절		
권7 통문	제서		
통유	영소		
	필법		
	통문	유고음	경주판과 동일
	통유	우음 2	
	의식	통문	
	발문	통유	
		의식	
		발문	

셋째, 목천판을 계기로 동경대전이 거듭 중간되고 동학 조직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892-1893년 동학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함.

목천에서 『동경대전』이 간행되어 각지에 배포되자, 그것을 계기로 동학에 들어오는 민중들이 많았다. 특히 청주, 진천, 충주, 청풍, 괴산, 연풍 등과 같은 현 충북지역과 목천, 공주, 연기 등의 충남지역에서 입도자 많았다.¹⁵⁾ 실제 손천민, 안교선, 김영식, 김상호, 안익명, 윤상오, 이일원, 여규덕, 여구신, 유경순, 이성모 등이 동경대전이 목천에서 간행되던 무렵에 동학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동학에 가입하면서 그들이 속한 지역민들도 속속 동학에 들어왔다.¹⁶⁾ 해월 최시형도 앞으로 동학이 조선 팔도 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 크게 흥행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¹⁷⁾ 목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 이후 동학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어 갔다. 그래서 해월 최시형은 그 여세를 기반으로 1883년 봄에 목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직후 곧바로 여름에 경주에서 『동경대전』을 또다시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5) 『시천교종역사』, 계미년조.

16) 『시천교종역사』, 계미년조.

17) 『천도교서』, 포덕24년 계미 3월조.

따라서 목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은 단지 경전 간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동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목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은 동학역사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역사의 큰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하도록 한 인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5. 『동경대전』 목천판 활용과 정책과제

① 문화재 지정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 가치를 전승하고 있다.

『동경대전』 목천판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동경대전』 판본이란 점, 이후 간행되는 동경대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 목천판 간행으로 동학역사가 큰 분수령을 이룬다는 역사성 등을 놓고 볼 때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탁월한 가치가 있다. 목천판 『동경대전』보다 3개월 늦게 간행된 경주판은 1981년 9월에 이미 서울특별시 일반동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조속히 『동경대전』 목천판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경대전』 목천판이 간행된 간행터가 학술적으로 고증되면, 간행터 역시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동학기념도서관 건립 조속 추진

천안지역에 동학도서관을 건립하자는 논의는 2019년부터 있었다. 그러다 2021년 『동경대전』 목천판 발굴을 계기로, 도서관 건립 논의는 구체화되었다. 그에 따라 천안역사문화연구회를 비롯한 전국 10개 단체가 참여한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구성되어 2022년 3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을 『동경대전』 목천판이 간행된 천안에 건립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은 ‘동학의 모든 기억이 살아 숨쉬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한 뒤 동학의 맥을 잇는 도서관, 한국근현대역사 도서 아카이브,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도서관 등을 아우르는 복합 아키비움 도서관으로, 소요예산은 310억원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시설로서 자주, 평등, 인권 등의 역사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역사플랫폼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은 한국 근현대역사의 현대적 중심지로서 상징성 확보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만큼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전향적으로 접근,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학기념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③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세계적 가치가 있는 값진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 심의·추천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유산이다. 기록물 유형은 문자 기록물, 이미지나 기호로 표기된 기록물, 영화와 악보·사진과 같은 시청각 자료, 인터넷 기록물 등으로, 한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기록물이거나, 세계 역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 정보나 인물·주제를 기록한 자료,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되거나 완성도가 탁월하고 희귀한 자료 등이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은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2023년 5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모두 185점이다. 여기에는 『동경대전』을 비롯한 동학 관련 기록물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과 종교 기록물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대전』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가치가 응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인이 기억하고 공유할 만한 충분한 보편적 가치도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희귀성과 탁월함 역시 있다. 그런 만큼 『동경대전』은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경대전』이 종교 경전이란 편협한 해석을 극복해야 가능할 것이다.

④ 『동경대전』 간행소 재현을 통한 역사교육 및 관광 자원화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터는 병천 면실마을, 또는 동면 구계마을설이 있으나, 조만간 정확한 위치가 학술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목천판 간행터로 최종 판명되면, 그곳은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동경대전』을 간행한 곳으로 뜻깊은 장소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곳은 역사 체험장소로, 또는 동학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장소로, 또는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빈터보다는 일정한 추체함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최상의 선택은 간행소 복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집을 복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차선택으로 김은경 집을 재현한 뒤 그 내부에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모습을 전시하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재현해 놓은 김은경 집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경대전』 강독, 『동경대전』 필사, 『동경대전』 목천판 목활자 인쇄, 『동경대전』 책 만들기, 동학 역사 이야기 강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⑤ 동학마을 조성

『동경대전』 목천판을 간행한 마을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마을가꾸기사업과 연계, 동학마을로 특화하여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학마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살고싶은 마을, 머무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동학’이라는 자원을 활용할 경우 보다 정체성 있고 특성화된 마을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은 독립운동가 정순만(1873-1911)이 태어난 곳으로, 정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주시의 1호마을 아카이브사업으로 조성되었다. 마을에는 정씨문중과 주민들이 정순만이 세운 덕신학교를 2016년에 복원, 정순만의 일대기와 청주항일독립운동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 3.1운동 때 마을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마을 뒷산에는 애국의 길을 조성하고 봉수대도 설치해 놓았다.



청주 옥산 독립운동가마을 모습



춘천 실례마을 이야기길 안내판

춘천 실례마을은 일제 강점기 소설가였던 김유정(1908-1937)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는 김유정 생가, 김유정문학촌, 김유정기념관 등이 들어서 있으며, 김유정문학촌으로 가는 실례마을길 뿐 아니라, 둘레길로 '김유정 실례 이야기길'을 잘 조성하여 운치를 더하고 있다. 실례마을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문학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죽어가던 마을이 활기를 찾고 사람들이 찾아와 살면서 멋진 마을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다.

⑥ 동학 테마로드 개발

동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보국안민 사상이었다. 이는 『동경대전』에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천안지역 동학 관련 유산을 연계하여 테마로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목천 지역은 근현대 유적,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가 많은 만큼 상호 연계하여 기행코스를 개발하면 매력적인 곳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천안역사문화연구회는 '천안근현대역사탐방길' 일환으로 동학 농민혁명의 길과 아우내 4.1혁명의 길을 조성하여 동학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다.

0 보국안민의 길: 세성산 - 독립기념관 - 이동녕생가 - 홍대용묘소 및 과학관 - 병천 유관순유적지 - 『동경대전』 간행지

이 길은 민중들이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 몸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근현대 역사를 보여주는 테마길이다. 걷기길은 아니며 차량으로 이동하는 기행코스이다.

0 다시 개벽의 길: 목천 복구정 - 세성산 - 홍대용과학관 - 유관순유적지 - 병천 면실마을/서원마을 - 은석산 - 목천 복구정

이 길은 동학의 핵심 사상의 하나인 다시 개벽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사상과 사회를 전망하고 실천한 장소를 찾아,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개벽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갖는 둘레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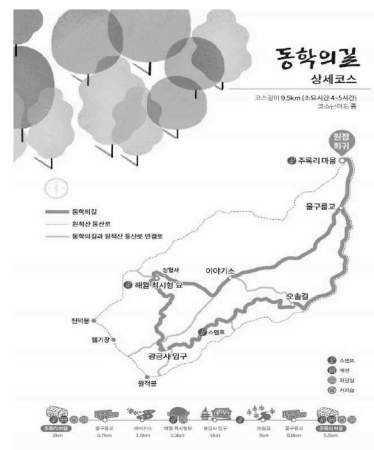


천안 다시 개벽의 길(돌레길) 구상도

한 예로 경기도 여주시는 해월 최시형의 묘소를 중심으로 여강길 11코스를 ‘동학의 길’로 조성하였다. 여주시는 경기관광공사의 역사문화생태 융합콘텐츠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여강길 11코스 동학의 길에서 2023년 5월 20일 여강길 걷기축제의 일환으로 ‘사슴마을의 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 여주시는 동학의 길 활성화를 위해 ‘사슴마을 동학의 길 안내자’ 양성교육을 통해 안내자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여주 동학의 길 코스(여강길 11코스)



여주 동학의 길

⑦ 동학 치유와 힐링 페스타 개최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에서 시천주 세상을 이루고 보국안민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수심정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수심정기란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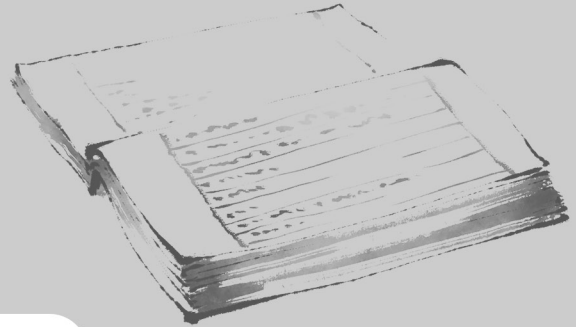
구하는 수행법이다. 그것은 고조선 이래 전해지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류도를 이어받는 것으로, 그를 위해 주문 수행을 매우 강조하였다. 또한 수심정기는 조선시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경세론을 이어받은 것으로, 집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수신, 즉 몸과 마음을 같고 닦아야 한다는 것과는 통한다.

이러한 동학의 수행론은 오늘날 현대인의 치유와 회복, 건강한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현대인은 개별화되어 있고 물신화되어 있어 점점 고립되어 갈 뿐 아니라, 오감이 둔감해지고 이성적인 지배를 받아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인은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시대에 보다 더 정신적인 존재가 되어 가면서 오감이 살아 있고 영적인 인간형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수심정기를 통한 치유와 회복, 생태공동체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1883년에 『동경대전』을 간행하여 온 누리에 동학의 정신을 퍼뜨린 장소적 가치를 살려, ‘동학 치유와 힐링 페스타’를 개최하여 21세기 새로운 치유와 힐링문화를 선도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볼 가치가 있다. 축제 공간은 『동경대전』을 간행한 곳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어간 세성산,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만세를 외친 병천 3.1운동 유적지, 독립기념관을 입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병천 3.1운동 유적지와 독립기념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의 의미를 확장해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나라의 독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부자유 및 불균형으로부터 진정한 주체적 인간으로의 독립, 기후 위기로부터의 독립 등 주체성 회복과 상호관계성 강화에 더 의미를 부여한 상징어이다.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토론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적 가치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종택

천안박물관 관장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적 가치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종택(천안박물관 관장)

근·현대사에서 천안은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고, 문화사적으로는 천안삼거리홍타령 민요로 대표되는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절’과 ‘홍타령’은 근대 천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수식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청일전쟁의 최초의 전장이었던 성환전투와 동학농민군의 목천 세성산전투와 같은 우리나라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의 역사, 그 한복판에 천안이 놓여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19년 천안역사문화연구회에서 주최한 ‘천안 세성산전투’ 학술대회와 2021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동경대전 계미중춘판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의’ 학술세미나는 근대로의 전환기 천안의 역사를 학술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술세미나에서 세성산전투와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2년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천안지역 동학농민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비롯해 관련 연구, 학술조사,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의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그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대체로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발표자께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의 인적·물적 토대에 관한 연구의 지속입니다.

“동경대전 목천판은 동학 역사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하도록 한 인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의 인적·물적 토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적 경험이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정책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나 사실에 관한 다층적인 연구의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의 인적·물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①왜 동경대전이 목천에서 간행되었는지? ②1880년대 목천지역 동학의 교세와 위상은 어떠했는지? ③세성산전투와 연관성은 어떠한지? ④동경대전 간행이 근대 천안 지역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발표자께서도 지적하듯이, 간행터의 기념물 지정은 간행소의 위치에 대한 학술적 고증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발표자께서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지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도서관 건립, 간행소 재현 및 관광자원화, 동학마을 조성 등을 여러 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제안한 정책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한 정책과제 중 문화재 지정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 기타 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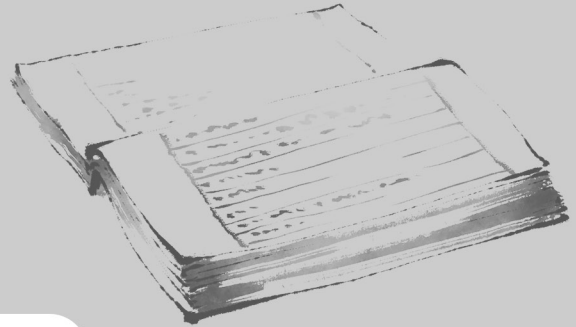
특히 후자의 경우,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조건 중 하나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할 때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과 전략적 로드맵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과제 7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책과제 하나하나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과제 도출에 앞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올바른 방향 설정은 사업의 명분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 발표는 시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제안한 정책을 현실화하기까지 우선순위 선정, 자원 마련, 시행 주체, 시행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토론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가치 계승

송길룡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가치 계승

송 길 룡(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천안지역사의 측면에서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동경대전』 목천판의 가치평가와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작은 기회나마 토론자로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중요 부분이라 생각되는 세 발췌문을 옮겨와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간단히 관련 토론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췌문 1] 가치 규명과 평가의 필요성

이렇게 동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 매우 뜻깊은 일이 충남 천안에서 있었다. 1883년에 천안 목천에서 간행된 동학 경전 『동경대전』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경대전』 판본으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경대전』 목천판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간행터의 위치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대전』 목천판에 대한 역사적, 서지학적, 장소적 가치 등이 제대로 규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동경대전』 목천판의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동경대전』의 원형가치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계승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경대전』의 위상 정립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직접적으로는 발간주체로 간주되는 초기 동학 교단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학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위상 정립을 전제로 더욱 확대된 시각에서라야 그 가치 규명의 진전이 가능하게 되는 이야

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를테면 조선후기 정신사를 관통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동학과 『동경대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더 큰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통하며, 더 나아가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서 아예 조선 시대 전체, 더 나아가 한국사 전체의 정신사를 조망하는 자리에서 동학과 『동경대전』를 살펴보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아마도 향후 과제 확대의 전망으로 보자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된 가치 규명의 연구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경대전』의 문헌명칭이 “~대전(大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전(大全)”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는 나름의 위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학 관련 자료 속에는 『이기대전(理氣大全)』이라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크지 않아 “~대전(大全)”은 실제상으로는 그 표현이 문헌 규모와 상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보다 그 문헌적 위상에 대한 극존칭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동학 밖에서 “~대전(大全)”의 사용례를 넓게 찾아봐야 하겠으나 언뜻 대중교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신리대전(神理大全)』도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듯합니다. 이 문헌도 분량면에서는 아주 짧습니다만 역시 “~대전(大全)”의 의미를 비슷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그 표현의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를 떠나 명칭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주자대전(朱子大全)』,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을 열거해볼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경우는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헌 명칭에 담긴 위상 표현의 역사적 의미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부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발췌문 2] 국가 차원의 보호 및 가치 계승

『동경대전』 목천판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동경대전』 판본이란 점, 이후 간행되는 동경대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 목천판 간행으로 동학역사가 큰 분수령을 이룬다는 역사성 등을 놓고 볼 때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탁월한 가치가 있다. 목천판 『동경대전』보다 3개월 늦게 간행된 경주판은 1981년 9월에 이미 서울특별시 일반동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조속히 『동경대전』 목천판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경대전』 목천판이 간행된 간행터

가 학술적으로 고증되면, 간행터 역시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동경대전』 목천판을 지정 문화재로 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와 가치 계승을 이행토록 하자는 데에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과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역시 ‘국가 차원’을 고려할 때에는 아무래도 ‘가치통합’의 관점을 아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안은 『동경대전』과 관련하여 특이한 역사인물 자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역사적 평가에 있어 논의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하간에 조병옥이 천안의 주요 역사인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의 찬반 여하를 떠나 반드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조병옥은 해방 직후 대표적인 우익인사의 한 인물로서 『나의 회고록』(1959, 민교사)이라는 본인의 자서전을 발간했는데 그 첫 장의 내용이 바로 ‘동학혁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병옥은 자신의 탄생 시기 역사적 배경으로 상세히 언급하며 ‘동학혁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 출생이지만 어린 시절 천안으로 이주하여 성장기를 보내고 일제 식민지 시기에 좌익진영 문학예술단체라 할 수 있는 카프에서 활동한, 대표작 『고향』으로 잘 알려진 민촌 이기영도 『동경대전』과 매우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영의 작은 고모가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김은경 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기영의 사돈 집안에서 『동경대전』이 만들어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표하여 노벨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게 한 그의 대하 역사소설 『두만강』이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1930년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동경대전』 목천판을 ‘국가 차원’의 관리대상 문화재로 삼아가는 이면에는 이렇게 좌우익을 망라한 천안 출신 역사인물들로부터 공통으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긍정성이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췌문 3] 동학도서관이라는 역사플랫폼

천안지역에 동학도서관을 건립하자는 논의는 2019년부터 있었다. 그러다 2021년 『동경대전』 목천판 발굴을 계기로, 도서관 건립 논의는 구체화되었다.

그에 따라 천안역사문화연구회를 비롯한 전국 10개 단체가 참여한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구성되어 2022년 3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을 『동경대전』 목천판이 간행된 천안에 건립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중간생략)

이러한 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시설로서 자주, 평등, 인권 등의 역사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역사플랫폼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은 한국 근현대역사의 현대적 중심지로서 상징성 확보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만큼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전향적으로 접근,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학기념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 천안지역에서 추진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학도서관’ 건립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과 규모로 추진되는 한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역사플랫폼’으로서의 위상으로 주목을 크게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문화콘텐츠 구축과의 연계성이 중요 부분이자 핵심 요소의 하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하역사소설이 송기숙 작가의 『녹두장군』입니다. 물론 ‘녹두장군’이 전봉준 장군을 나타내는 별칭인 만큼 그의 주요 활동무대인 전라도 지역이 주요 배경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 편중성이 있다 하더라도 천안이 가지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소설적 활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은 또한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공주-목천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이 하나의 주요 에피소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하역사소설로 박태원 작가의 『갑오농민전쟁』은 남한에서도 소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소설 속에서도 천안삼거리는 동학농민군의 주요 회합장소이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활동거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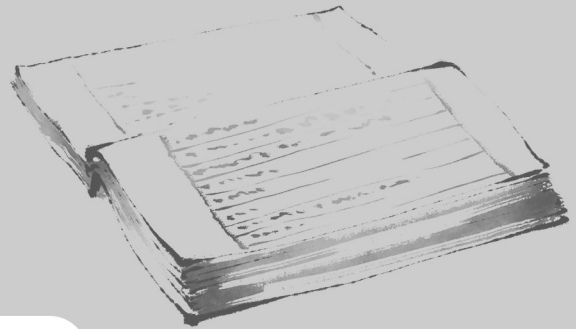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은 대하역사소설로서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거대서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아울러 삼남의 교통요충지인 천안이 빠짐없이 주요 활동지역 장소로 서사적 활용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위상을 실감할 수 있으며 역시 무한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에서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매우 드문 서사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와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된 ‘동학도서관’의 추진형태를 더욱 깊게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토 론

천안시와 『동경대전』 목천판이 갖는 의미

박 종 갑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와 『동경대전』 목천판이 갖는 의미

박종갑(천안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박종갑의원입니다.

먼저, 천안시와 동학의 역사를 논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분들과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동학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산물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천안시와 후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과 동학의 관계에 있어서 천안시민들은 세성산 전투를 언급합니다. 매년 11월 천안 세성산 위령비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천안세성산전투 희생자위령제”를 통해 동학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천안 동면 죽계리에서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미중춘판(목천판, 1883)을 통해 천안과 동학의 관계가 지역주민에게 한번 더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올해 7월 동경대전(목천판) 연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과업목적

-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으로 경진판(인제판, 1880년)을 비롯해 총 10개의 판본이 있음
- 동면 죽계리에서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미중춘판(목천판, 1883)이 2021년에 확인되었음
- 동경대전(목천판) 간행터 등에 대한 연구조사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 천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 과업내용

- 동경대전(목천판) 및 간행터 관련 학술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 동경대전(목천판) 및 간행터 관련 학술세미나 추진
- 동경대전(목천판) 및 간행터 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성과 분석 및 학술세미나 자료 정리 분석

○ 조사방법

- 관련 자료 조사는 동경대전(목천판)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 등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 동경대전(목천판) 간행터 관련 기초조사 실시
- 동경대전(목천판) 간행터 관련 역사문화적 의의 분석을 위한 학술세미나
- 동학동민혁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추진
- 동경대전(목천판) 간행터 관리 및 활용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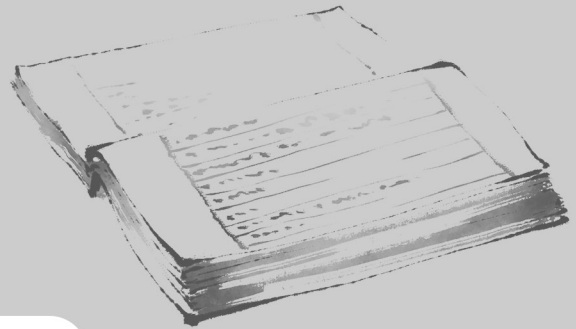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경대전 및 간행터가 곧 학술적으로 규명이 되어 역사 체험장소 또는 관광지로 활용되어 천안시민에게 동학의 불거리를 선사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의미있는 토론회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

의정토론회



토론

『동경대전』 목천판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지정방안

송길상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종무팀장

『동경대전』 목천판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지정방안

송 길 상(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종무팀장)

먼저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이 갖는 천안 동학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김선태 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양식 교수님께서 ‘『동경대전』 목천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활용과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 지정,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간행소 재현을 통한 역사 교육 및 관광자원화, 동학마을 조성, 동학 테마로드 개발, 동학 치유 힐링 페스타 개최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양식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드리고 제안해 주신 의견 중 문화재 지정 등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터’에 대한 학술적 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간행소 재현, 동학마을 조성 및 활용사업을 제안하셨는데 학술적 규명의 근거와 진행사항 또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문화재 지정

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유형문화재 중 판본류의 지정기준은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동경대전』 목천판’의 가치에 대해 현존 최고(最古)의 판본이라 하였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경대전』 목천판’의 문화재적 지정 가치는 현존 최고의 판본이라는 것보다는 후술하신 ‘완전한 형태로 간행된 최초의 동학 경전’으로서 주요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나.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터에 대한 학술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간행터에 대해 도지정 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향후 제안해 주신 활용사업의 추진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경대전』 목천판’의 경우 동산문화재로서 활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행터’의 경우『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념물(사적)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가항 3호)’, 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가항 4호)’을 충족할 경우 충청남도 기념물로서의 지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활용사업 추진의 선행조건

발표자께서 제안한 활용방안은 비지정 문화재 상태에서는 법적·재정적으로 추진에 많은 난관이 있으며 행정적 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 기탁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천안시 등에서는 우선 ‘『동경대전』 목천판’과 ‘간행터’에 대한 문화재 지정가치를 명확히 하고 지정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활용사업의 계획이나 추진보다는 우선 문화재 지정 후 발표자께서 제안한 활용방안을 포함,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정토론회를 통해 ‘『동경대전』 목천판’의 가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